

중기부, 경남 집중호우 피해 전통시장 ‘원스톱 지원센터’ 가동

- 시설·금융·행정 지원 등 피해 복구부터 경영 안정까지 현장 지원 총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영업 재개와 일상 회복을 위해 8월 19일(수)부터 ‘원스톱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피해 상인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 복구, 금융 지원, 행정 지원, 고충 상담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통합지원체계이다.

이번 원스톱 지원센터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정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거제 고현시장(주차장 관리실)과 통영서호시장(상인회 사무실) 등 2곳에 설치하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휴일 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집중호우 발생 직후 현장점검을 통해 상인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해왔으며,

앞으로 피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조속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정책자금·보증 등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전통시장의 전기·가스 시설 복구 등 신속한 피해 복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성향용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류희열	(044-204-7881)
		담당자	주무관	이재호	(044-204-7898)